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소고*

김 성 기**

회계기준서에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비분리형에 대한 회계처리도 분리형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하여 회계처리하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I. 서 론

신주인수권은 일반적으로 사채나 우선주에 부가되어 발행되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비분리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신주인수권 시장이 형성되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

기업이 여러 종류의 증권을 일괄발행하면 총발행가액을 각 증권에 배분하여야 하는데, 상대적 공정가액(시가)법에 의하면 발행시점의 각 증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액(시가)에 비례하여 총발행가액을 각 증권에 배분한다.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적용하려면 발행시점에 각 증권의 공정가액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특정증권의 공정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정증권의 공정가액(시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분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이 형성된 증권에 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대학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증권의 공정가액만큼 발행가액을 먼저 배분하고, 발행가액 중 배분되지 않은 잔액을 공정가액이 형성되지 않은 증권에 할당한다. 그러나 일부증권만의 공정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정가액이 형성된 증권이 총공정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형성된 증권에는 발행가액 전액을 배분하고 공정가액이 형성되지 않은 증권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아 장부가액이 ₩0이 되도록 한다.

신주인수권이 사채에 부과되어 발행될 때는 회계처리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신주인수권과 사채에 대한 평가액을 결정하는 문제로, 최초의 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발행가액을 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시가와와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둘째는 발행가액 전액을 사채에 배분하고 신주인수권에는 전혀 배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첫째 견해에 의하면 사채의 시장가격은 발행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자액에 따라 결정되며, 신주인수권의 시장가격은 발행회사 보통주의 시장가격, 즉 발행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사채의 시장가격과 신주인수권의 시장가격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적정가치를 배분하지 않으면 이는 증권법적 형태만을 중시하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반해 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에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사채와 병행하여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때 각 증권별의 시장가격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발행가액을 각 증권에 배분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각 증권을 분리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발행가액을 분리하지 않는 방법은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과 유사하다. 즉,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내용도 다르고 법적 형태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후에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말하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가 발행된 후에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말한다. 「상법」에 의하면 비분리형인 경우에는 사채 자체를 보통 주로 전환시키지 않고 신주인수권만 행사할 수가 있다. 즉,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회사에 제시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만 사채권에 기재되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행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형태로 유통된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에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상법」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경제적 실질보다는 발행형식 및 거래방법이 강조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I. 회계기준서의 회계처리방법

「회계기준서」에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비분리형에 대한 회계처리도 분리형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즉,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계산하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시가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회계기준서」는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할 때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이용하면 분리형으로 분류하고 증분법을 이용하면 비분리형으로 분류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분리형이면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비분리형이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거래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분법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한다.

예제 1. 분리형 및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회계기준서」 방법

1차연도 1. 1.에 푸른숲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가액: ₩1,000, 표시이

자율: 연 8%, 만기: 3년) 1,000매를 액면발행하였다. 일반사채의 수익률(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사채 1매당 1매의 신주인수권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인수권 10매당 액면 ₩5,000인 보통주 1주를 ₩5,800에 매입할 수 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직후의 사채 1매당 공정가액은 ₩903.926이며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은 1매당 ₩96.074이다. 1차연도 1. 2.에 신주인수권 800매가 행사되었으며, 나머지 200매는 권리행사기간 만료일까지 행사되지 않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각각 가정하여 「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text{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quad ₩1,000,000 \times \frac{₩903,926}{₩903,926 + ₩96,074} = ₩903,926$$

$$\text{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quad ₩1,000,000 \times \frac{₩96,074}{₩903,926 + ₩96,074} = 96,074$$

(신주인수권 대가)

$$\text{발행가액} \quad \underline{\underline{₩1,000,000}}$$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

$$\text{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액} \quad ₩1,000,000$$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유효이자율: 연 12%)

$$\text{액면가액의 현재가치} \quad ₩1,000,000 \times 0.71178 = ₩711,780$$

$$\text{총이자비용의 현재가치} \quad ₩80,000 \times 2.40183 = \underline{192.146} \quad (903,926)$$

$$\text{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 \quad \underline{\underline{₩ \quad 96,074}}$$

	<u>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u>	<u>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u>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점:		
현 금	903,926	왼쪽과 동일
신주인수권조정	96,074	

신주인수권부 사채	1,000,000	
현 금	96,074	
신주인수권대가	96,074	
신주인수권부 사채 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76,859	왼쪽과 동일
신주인수권조정	76,859	
현 금	464,000	
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64,000	
신주인수권의 권리소멸시점:		
신주인수권조정을 상각함		왼쪽과 동일

[평가] 일반사채의 수익률(유효이자율)이 연 12%이므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1매당 공정가액이 ₩903.926이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거래되면 신주인수권 1매당 공정가액이 ₩96.074로 거래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나와 관련된 것이지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개념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니다.

III. 이론적 회계처리

1. 분리형 신주인수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소유자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면서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사실상 두 가지 종류의 증권(신주인수권과 사채)을 동시에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증권에 대하여 독립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면 발행시점의 발행가액을 사채의 가격뿐만 아니

라 신주인수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행가액을 각 증권의 상대적 공정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text{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 \text{발행가액} \times \frac{\text{사채의 공정가액}}{\text{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 + \text{사채의 공정가액}}$$

$$\text{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 \text{발행가액} \times \frac{\text{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text{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 + \text{사채의 공정가액}}$$

이와 같은 방법은 주식의 일괄발행시에 적용되는 상대적 공정가액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발행시점에서 두 개의 증권 중 하나의 공정가액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고 있는 증권에 우선적으로 당해 증권의 공정가액만큼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증권에 배분한다. 이 방법은 주식 일괄발행시에 적용되는 증분법과 동일하다. 두 증권의 공정가액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별도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이 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에 배분한 후에는 할인발행된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할인발행된 경우에 각 시점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시점:

현금	XXX	
신주인수권대가		XXX
현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XXX	
신주인수권조정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신주인수권부 사채		XXX
상환할증금		XXX

② 이자비용지급시점:

이자비용	XXX
------	-----

현금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신주인수권조정	XXX

③ 신주인수권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사채상환할증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신주인수권조정		XXX*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

현금	XXX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④ 상환시점:

신주인수권부 사채	XXX	
사채상환할증금	XXX	
현금		XXX

현금	XXX	
신주인수권대가		XXX

현금	XXX	
신주인수권조정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신주인수권부 사채		XXX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이 결정되면 그 이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이나, 행사기간의

만료시점에서는 신주인수권이 독립적으로 발행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면 사채의 소유권도 동시에 포기하여야 하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투자자에 의해 원래 형태대로 보유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처럼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우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단지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만 한다. 그러므로 발행회사는 한 종류의 증권, 즉 사채만 발행된 것처럼 취급하여 발행가액 전액을 사채에만 배분한다. 그리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일종의 사채중도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할인 발행한 시점에는 일반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현 금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신주인수권부 사채		XXX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되며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의 전환과는 달리 투자자가 추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주인수권 행사시에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현 금	XXX	
신주인수권부 사채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보통주자본금		XXX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XXX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원래의 형태인 사채로 남아 있으므로 분개할 필요가 없다.

예제 1을 이론적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u>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u>	<u>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u>
1. ㉠ 발행가액의 배분:		
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text{₩}1,000,000 \times \frac{\text{₩}903,926}{\text{₩}903,926 + \text{₩}96,074}$	
	= ₩903,926	₩1,000,000
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text{₩}1,000,000 \times \frac{\text{₩}96,074}{\text{₩}903,926 + \text{₩}96,074}$	
	= ₩96,074	<u>0</u>
합계	<u>₩1,000,000</u>	<u>₩1,000,000</u>

사채 1매당 장부가액	$\text{₩}903,926 \div 1,000\text{매}$	
	= ₩903.926	₩1,000
신주인수권 1매당 장부가액	$\text{₩} 96,074 \div 1,000\text{매}$	
	= ₩ 96.074	0

㉡ 발행시점:

현 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903,926	현금	1,000,000
신주인수권조정	96,074	신주인수권부 사채	1,000,000
신주인수권부 사채	1,000,000		
현 금	96,074		
신주인수권대가	96,074		

2. 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76,859*	현금	464,000
주식발행초과금	76,859	신주인수권부 사채	800,000
* 800매 × ₩96.074 = ₩76,859		자본금	400,000
현 금	464,000*	주식발행초과금	864,000

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64,000
* 80주 × ₩5,800 = ₩464,000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면 전환사채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환할증금 중 행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A)	xxx
행사시점에서 A의 현재가치	<u>(xxx)</u>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액(B)	<u>xxx</u>

한국회계기준원은 위의 B를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으로 해석한다.

예제 2. 할인발행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빈털털회사는 1차연도 1. 1.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1,806,582에 발행하였다.

총액면가액: 사채 2,000매 총 ₩2,000,000

표시이자율: 연 6%

일반사채의 수익률(유효이자율): 연 15%

신주인수권사채 1매당 신주인수권 1매를 첨부

신주매입가격: 신주인수권 10매당 액면가액이 ₩5,000인 보통주 1주를 ₩7,000에 매입

신주매입기간: 사채발행 이후 1개월 경과일로부터 상환만기일 2일 전까지

상환일(만기일): 3차연도 12. 31.

이자지급방법: 매연도 말에 지급

상환방법: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채는 액면가액의 113.24%를 일시상환(보장수익률: 연 10%)

물음

1. 상환할증금과 신주인수권조정금액을 계산하라.
2. 다음 시점에서 필요한 분개를 하라. 또한 각 시점에서 부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
 - ① 1차연도 1. 1.
 - ② 1차연도 12. 31.
 - ③ 2차연도 12. 31.
3. 3차연도 1. 2.에 총 1,600매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 필요한 분개를 하고 부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
4. 3차연도 12. 31.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해답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가액	₩2,000,000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현재가치(보장수익율: 연 10%)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0.75131 = ₩1,502,620$	
총이자비용의 현재가치 $₩2,000,000 \times 6\% \times 2.48685 = 298,422$	(1,801,042)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u>₩198,958</u>
상환할증금: $₩198,958 \times (1+0.10)^3 = ₩264,81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액	₩1,806,582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유효이자율 : 연15%):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2,000,000 \times 0.65752 = ₩1,315,040$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 264,813 \times 0.65752 = 174,120$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 120,000 \times 2.28323 = 273,988$	(1,763,148)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	₩43,434
상환할증금	<u>264,813</u>
신주인수권조정	<u>₩308,247</u>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만기상환액(₩2,264,813)과 현재가치(₩1,763,148)의 차액 ₩501,665를 다음과 같이 상각한다.

만기상환액과 현재가치의 총차이에 대한 상각표

연도	기초 장부가액	유효 이자율	총이자비용 ④ = ② × ③	현금 이자비용 ⑤	할인액 총상각액 ⑥ = ④ - ⑤	기말 장부가액 ⑦ = ② + ⑥
①	②	③		⑤	⑥ = ④ - ⑤	⑦ = ② + ⑥
1차연도	₩1,763,148	15%	₩264,472	₩120,000	₩144,472	₩1,907,620
2차연도	1,907,620	15	286,143	120,000	166,143	2,073,763
3차연도	2,073,763	15	311,050*	120,000	191,050*	2,264,813
합 계			₩861,665	₩360,000	₩501,665	

80%행사 후 상각표

3차연도 ₩1,889,545** 15% ₩283,418* ₩120,000 ₩163,418 ₩2,052,963***

* 반올림오차

**상환할증금 중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A) ₩211,850

행사시점에서 A의 현재가치 (184,218)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 ₩27,632

$$₩2,073,763 - ₩184,218 = ₩1,889,545$$

$$***₩2,000,000 + (₩264,813 \times 20\%) = ₩2,052,963$$

총차액 ₩501,665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분해한다.

신주인수권조정 ₩308,247

할인발행차금

액 면 가 액 ₩2,000,000

발 행 가 액 (1,806,582) 193,418

합 계 ₩501,665

할인발행차금 ₩193,418과 신주인수권조정금액 ₩308,247을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배분한다.

할인액 총상각액의 배분				
연 도	할 인 액 총상각액	배 분 율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①	②	③	④=₩193,418×③	⑤=₩308,247×③
1차연도	₩144,472	28.799%*	₩55,701	₩88,771**
2차연도	166,143	33.118	64,057	102,086**
3차연도	<u>191,050</u>	<u>38.083</u>	<u>73,660</u>	<u>117,390**</u>
합 계	<u>₩501,665</u>	<u>100%</u>	<u>₩193,418</u>	<u>₩308,247</u>

80% 행사 후 배분

3차연도	₩163,418	38.083%	₩73,660	₩89,758
------	----------	---------	---------	---------

* ₩144,472 ÷ ₩501,665 = 28.799%

** 반올림오차

1차연도 1. 1. 발행시점:

현금	43,434	
신주인수권대가		43,434
현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1,763,148	
신주인수권조정	308,247	
사채할인발행차금	193,418	
신주인수권부 사채		2,000,000
상환할증금		264,813

1차연도 12. 31. 결산시점:

이자비용	264,472	
현금		12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5,701
신주인수권조정		88,771

부분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가액)	₩2,000,000
상환할증금	264,813
사채할인발행차금	(137,717)*
신주인수권조정	(219,476)
신주인수권부 사채(장부가액)	<u>₩1,907,620</u>

* ₩64,057+₩73,660=₩137,717

자본:

신주인수권대가	₩43,434
---------	---------

2차연도 12. 31. 결산시점:

이자비용	286,143	
현금		12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4,057
신주인수권조정		102,086

부분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가액)	₩2,000,000
상환할증금	264,813
사채할인발행차금	(73,660)
신주인수권조정	<u>(117,390)</u>
신주인수권부 사채(장부가액)	<u>₩2,073,763</u>

자본:

신주인수권대가	₩43,434
---------	---------

3. 총 1,600매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으므로 80%가 전환된 것이다.

발행주식수: $1,600\text{매} \div 10\text{매} \times 1\text{주} = 160\text{주}$
 보통주자본금: $160\text{주} \times \text{₩}5,000 = \text{₩}800,000$
 상환할증금: $\text{₩}264,813 \times 80\% = \text{₩}211,850$
 신주인수권대가: $\text{₩}43,434 \times 80\% = \text{₩}34,747$

신주인수권대가	34,747	
주식발행초과금		34,747
사채상환할증금	211,850	
주식발행초과금		211,850
주식발행초과금	27,632	
신주인수권조정		27,632*
*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현금	1,120,000	
보통주자본금		800,000
주식발행초과금		320,000

부분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가액)	₩2,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3,660)
상환할증금	52,963
신주인수권조정	(89,758)
신주인수권부 사채(장부가액)	<u>₩1,889,545</u>

자본:

보통주자본금	₩800,000
주식발행초과금	538,965
신주인수권대가	8,687

4. 신주인수권부 사채 2,000,000

상환할증금	52,963
현 금	2,052,963

IV. 결 론

「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한다. 자본부분의 가치를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인식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신주인수권조정을 계상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구분한다.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하고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되지 않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현재가치는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액(상환할증금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어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가액에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A Study on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Bonds with Stock Warrants

Kim, Song Ki*

ABSTRACT

Accounting standards acknowledge that detachable warrants and nondetachable warra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nature. However, accounting treatments for nondetachable warrants are, in essence, the same as accounting treatment for detachable warrants. The questions arises whether the allocation of the value of the warran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exercise privilege. It is reasonable that the issuance of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s involves two securities, one a debt security, which will remain outstanding until maturity, and the other a warrant to purchase common stock. Due to the fact that separable instruments exists at the time of issuance, separate treatment is justified. However, the entire proceeds from nondetachable warrants should be recorded as debt.

Although the legal forms are different, sufficient similarities of substance exist to support the same accounting treatment, that is, inseparability per se is not a sufficient basis for restricting allocation between identifiable components of a transaction. Therefore, to deny recognition of value to the conversion feature merely looks to the form of the instrument and does not deal with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